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인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사명자 대회 15일째 행군중

### -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사도 되어 맡기신 사명 감당하자 -

2001 사명자 대회가 시작한지 2주일 째로 벌써 전체 여정의 1/3의 고비를 넘어 서고 있다. 매일 예배당에서 공동기도제목과 성경을 읽으며 7대 기도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며 한편으로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먼저 내가 먼저 변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개개인의 삶에서 일치와 증거가 있도록 하며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번 사명자 대회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는 조용한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 드리며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에 맡겨주신 민족 복음화의 사명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남은 2/3의 여정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한다.

### ▷ 성경암송대회에선 다음주로 - 요한1서 1장 ~ 5장 -

성경 암송대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교회의 성경암송대회는 전 교회학 교에서 참여하여 말씀을 암송하며 은혜 받는 훌륭한 믿음의 전통을 이어왔다.

올해도 이 전통을 계속이어 요한일서 1장에서 5장까지 전장을 범위로 정하여 다음주일 각 교회학교별로 예선전을 갖는다.

성경암송대회의 본 뜻은 각 개인이 잘 외우는 실력보다 될 수 있는 데로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생명의 양식을 입으로 증거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본문을 암송하지 못해 자신이 없다고 뒤로 처지는 성도가 없이 다만 1장 (10절)만이라도 암송하여 말씀을 입으로 증거 하는 자리에 참여토록 한다.

### ▷ 대치역 자매결연 확정

#### - 10월24일(수) 오후2시 대치역에서 -

우리교회와 교인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의 자매결연이 확정되었다.오는 10월24일 오후 2시 대치역 3번 출구(은마아파트 방향)쪽에서 대치역(김재진 역장)과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게 된 것이다.

이번의 우리 교회와 대치역과의 자매결연은 우리교회가 지역사회 전도를 위해 그동안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인 것이며 교회는 앞으로 이 좋은 기회를 선용하여 역내에 우산을 비치하여 주민 누구나 쉽게 우산을 빌려가며 함께 사랑을 나누고 역내에 도서관을 꾸며 신앙서적과 일반 도서를 비치하여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세상의 지식과 함께 하나님의 지식을 접하게 되어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많은 전도 활동을 대치역 내에서 앞으로 계속하여 진행하게 된다.

오는 10월24일(수)오후2시에 갖게되는 자매결연식에 수요1부 예배에 참여하는 많은 성도들의 참여가 요청된다.

### ▷ 기독교 창작극 경연대회 열린다

#### 10월27일(토) 오후5시

광나루 문학회에서 주최하는 기독교 창작극 경연대회 본선이 우리교회 본당에서 오는 10월27일(토) 오후 5시에 열리게 되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3개의 팀이 공연케 된다.

우리 교회에서는 필그림 예술단이 '기도'를 제목으로한 창작극을 가지고 참가하고 있다.

### 차량관리부에서 함께 봉사할 성도를 찾는다.

우리 교회는 지하1~3층에 주차장 시설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날로 증가하는 성도와 함께 주차시설은 한정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차량관리부'를 조직하여 성도들의 주차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지하에서 조용히 봉사하고 있는 차량관리부에서 함께 봉사할 성도를 기다리고 있다. 1부:7명, 2부:7명, 3부:7명, 찬양예배:2명 등 총 23명이 필요하며 차량관리부에서 봉사를 원하는 성도는 교회 사무국으로 신청하기 바란다.

### 지난주 우리교회는



① ② 평일에도 계속 이어지는  
50일 연속 - 24시간 기  
도의 등불을 끄지않는다

③ 우리들 이외에 잘 대너왔  
습니다.



### -태신자 명단- (2001년 10월 12일 현재)

- 전도자; 정연택- 이명옥, 성유경, 유호승, 신완식, 정성택, 박소영,
- 전도자; 이남복- 정용수,
- 전도자; 유후자- 이일흠, 이광용, 이한용, 김미선,
- 전도자; 왕경래 - 박승민, 윤종진,
- 전도자; 김희진- 박진원, 김중만, 김명우, 김현우,
- 전도자; 송경점- 경말생, 송예진,
- 전도자; 양명희- 정 용, 전도자; 김영란- 김미경

(다음호에 계속)

### 이번주 말씀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개역개정판 계 1:17~18)  
When I saw him, I fell at his feet as though dead. Then he placed his right hand on me and said: "Do not be afraid. I am the First and the Last, I am the Living One; I was dead, and behold I am alive for ever and ever! And I hold the keys of death and Hades (NIV Rev 1:17~18)

이사야서 강해

#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 (이사야 51장 17 - 23절)

이스라엘은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지금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중운 목사

영적으로 술 취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줍니다. 깨어 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요청하십니다. 죄의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이 아니고 절망의 혼수상태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절망에 취해서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깊은 혼돈에 빠져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절망에 빠져있었는지 바벨론에서 해방되었을 때 꿈꾸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시 126:1).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에서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깨어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어나 의식을 회복하고 평강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 1. 영적 마취 상태에서 깰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림 치게 하는 큰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17절).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받은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취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처음에는 알콜에 자극을 받아 신경이 우둔해지다가 나중에는 조각이 마비됩니다. 아편이나 환각제도 처음에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지만 나중에는 절망과 마비와 무능력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마취의 것입니다. 마취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도록 하고 희망을 끊어버리며 비틀거리게 합니다. 술 취한 사람, 환각제에 취한 사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분수에 넘치는 일을 요구받은 사람, 반복된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마침내 영적 감각이 마비되고 좌절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18절).

영적 감각이 마비된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없어지게 되고 자식까지도 떠나가게 됩니다. 심각한 절망에 빠지면 자식까지도 싫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굴해집니다(23절). 절망에 빠지면 다른 사람이 위로해줄 것 같은데 실상은 것없어집니다. 이때에 영적 절망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처럼 오랫동안 한심한 상태와 비참함 속에 빠져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환난 중에 있었을 때 그들을 도와야 할 자들은 돕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실망시켰습니

다. 아마 그들에게는 도울 능력이 없거나 혹은 도우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라 곧 황폐와 절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라"(19절).

나라에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더라도 이스라엘의 슬픔을 공감하거나 근심의 짐을 덜어줄 자가 없습니다. 진정 슬픈 두 가지 사실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슬픈 상황에 있다는 것과 불쌍히 여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 위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임한 두 가지 일은 후에 바벨론에 임하여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일이 한 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사 47:9).

"네 아들이 곧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 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와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다"(20절).

자녀는 화살통의 화살이고 가정의 힘입니다. 그런데 자녀들까지 완전히 기가 죽고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기 영혼과 즐거움을 지킬만한 인내가 없었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믿음도 없으니 자녀들을 지킬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곧비해질 수밖에 없고 마치 그물에 걸린 사슴처럼 꼼짝 못하고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물에 걸린 들소처럼 불안해서 친구에게 화를 내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영적 마비 상태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비참합니다.

### 2. 말씀을 거부한 예루살렘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17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취상태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선지자는 안타깝게 부르짖습니다. 죄를 책망하고 잠든 상태를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은 감사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옹기 받아들이기 수만 있다면 역사는 반전됩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강력하고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효력이 없었습니다.

### 3. 예루살렘의 환난이 옮겨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예루살렘의 환난은 끝나게 되고 그들에게 덤벼들던 펫박 자에게 그 환난이 옮겨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 곧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23절).

이스라엘은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지금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라"(21절).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① "네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는 네 하나님"(22절).

하나님은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실 능력이 있고,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하시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일에 전념하시는 하나님은 "보라 내가 비틀거림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22-23절)고 말씀하십니다.

②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후원자이시고 보호자이시며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 자신에게 행해지는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일어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앞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23절).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비롯하고 거만한 자들에게 공정하게 원수를 갚으십니다.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23절). 바벨론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을 확대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던지려고 했던 굴에 던지움을 받아 사자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혼란의 잠에서 깨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금주의 사명자대회 각 주력 부서. 교구 안내

## ▶ 금주의 사명자대회 중 금요일기도회 주관부서

월 일	교 구	전도회	교회학교	찬양대
10. 26(금)	4, 5, 6, 교구	베드로, 뫼뵈	사랑부, 장년3, 4, 5부	임미누엘

## ▶ 금주의 사명자대회 중 70인 전도대 주력 부서

월 일	교 구	남선교회/여전도회
10. 27(토)	3, 4교구	빌립, 도르가

## ▶ 금주의 사명자대회 중 24시간 연속 기도회 주력교구

10. 21(주)	10. 22(월)	10. 23(화)	10. 24(수)	10. 25(목)	10. 26(금)	10. 27(토)	10. 28(주)
6교구	3교구	10교구	5교구	12교구	7교구	2교구	7교구

그리스도인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 한다. 감당할 수 없는 찬사이다.

세상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은 가시나무처럼 보시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를 백합화처럼 보이시다니 이 웬 은혜인가? 어인 까닭일까? 나 같은 허물 많고 못난 위인을 서울교회 초대장로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어찌 다 감사하리오 만은, 거기에 아무 것도 한 것 없고 오히려 무익한 종 된 나를 수고하였다고 안식년까지 주시니 몸뚱 바를 모를 지경이다.

서울교회를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어 10년 전 세워주시고 한국교회는 물론 세계교회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게 하셨다. 이 거대한 물줄기의 한 끝에서 작은 호미 자루나 불잡고 허우적거리던 나에게도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다. 마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청초하고 우아한 자태로 주변을 아



름답게 하고 그속하고 고상한 향기로 대기를 정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만민을 혼쾌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느냐이다. 그래서 나는 안식년 기간동안 교사로 주차위원으로 때로는 부역에서 접시 닦는 일도 내게 닦치는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해 보려 했다. 밤이 너무 어둡다는 이유로 등불을 꺼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가시밭이기 때문에 백합화의 사명이 더 크게 나타나듯 나는 교회를 섬기는 자세를 분명히 갖게 되었다.

화원에 핀 백합화라면 안전이 보장되었지만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에게는 치명적인 수난이 연속된다. 험상스런 가시로부터 굽히고 찢기 우기 마련이지만 이것은 내게 주신 은혜로 알고 나는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것은 평안이지 안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성장을 중단하면 수난도 중단될 것이다. 부단히 성장하기 때문에 찢기 우고, 찢기 우기 때문에 도리어 강력한 향기를 발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되기를 나는 오늘도 기도한다.

서울교회여 무궁하여라.  
하나님이여 기뻐하소서  
여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있다.

이슬람을 위한 기도의 시작 -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전쟁으로 이슬람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 순례자 기획 기사

## 이슬람 바로 알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1> 이슬람교란?

이슬람교는 전지전능의 신 알라의 가르침이 대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마호메트에게 계시되었다고 믿는 종교다. 또 유대교·그리스도교 등 유대계의 여러 종교를 완성시킨 유일신 종교임을 자처하는 종교다. '이슬람'이라는 말은 신에 대해 신자가 '항복한다'는 의미로 '무슬림'은 그러한 항복의 행위를 취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슬람교의 신인 '알라'는 이슬람교도들이 믿는 단일신의 이름이다. 이들에게 알리는 만물의 창조주이며, 진리이며 빛이다. 또 관대하고 사랑이 많으며 무소부재한 존재다. 알라의 계시를 모은 경전을 《코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호메트가 말한 내용으로, 그가 죽은 뒤 신도들이 수집 정리한 것이다.

### 2> 이슬람과 기독교의 교리상의 차이

이슬람과 기독교는 결코 화합하기 힘든 교리상의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

#### ① 삼위일체 하나님의 부정

그들은 자식이나 부모도 없고 인간도 아닌 알라라는 단일신 사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 ② 예수는 단순한 예언자(사도)이다.

이슬람교도들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적 등 예수님의 행적을 인정하여 코란에서 가장 많이 존칭을 섞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주가 아닌 알라의 계시를 전하기 위해서 온 예언자 중의 하나일 뿐이다. 곧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성

육신 신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 ③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사역을 부정한다.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사역에 대하여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예수님이 아닌 반역자 가룟 유다로 되어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건을 통한 인류 구원 사역을 무효로 만들고 인류 창조시점으로부터 인류 구원을 계획해오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전락시킨다. 대신 그들은 종교의 본 뜻으로 이슬람(신에게 완전한 복종)을 부르짖으며 그들에게 인간은 신의 명령에 의해 단순히 움직이는 모르모트와 같은 존재로 모든 것의 책임을 신의 뜻으로 돌리고 자신의 행위의 책임을 회피한다. 죄를 짓는 것도 신의 뜻이고 살인하는 것도 신의 뜻이 되고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것도 신의 뜻이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노여움은 단순한 체스처가 되고 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결론으로 이슬람은 성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종교가 아닌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겨냥한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이단이다.

#### 3> 이슬람교의 현황

현재 이슬람교도는 전세계 55개국에 12억의 신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1억 5천만명으로 가장 많다. 전통적으로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중동과 아시아 북아프리카 지역에 기반을 두었다가 지난 1970년대 세계적인 유류 파동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1979-1989) 등을 거치면서 러시아와 유럽, 그리고 북미지역으로 확산해나갔다. 그 결과 현재 미국 내에서도 매주 한 개의 이슬람 사원이 건설되고 있으며, 이슬람교도가 미국내 외국 유학생 가운데 최대수를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

#### 4> 아프가니스탄과 탈레반

중앙아시아의 심장부에 위치한 아프가니스탄은 1973년까지는 왕정체제를 유지해왔다. 이후 쿠데타로 왕이 축출되었고 공산정권과 이슬람 세력간의 복잡한 내전이 오랫동안 반복되다가 지난 1996년 이슬람 근본주의 탈레반 세

력이 집권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20년 동안 계속된 내전 탓에 100만명 이상이 기근에 허덕이고 50만명 이상이 난민캠프에 수용돼 유엔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고 수백만명 이상이 이웃나라로 피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와중에도 집권 탈레반은 극단적 근본주의 이슬람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전체 노동인구의 40%인 여성에 대해 교육과 취업은 물론 자유로운 외출까지 규제하고 있고, 여성이 눈만 보이는 옷인 '차도르'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돌로 쳐죽일 정도로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신봉하고 있다. 이밖에도 외세문화 배격을 이유로 TV와 비디오, 위성 TV, 음악을 금지하고 축구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 경기도 금지해오고 있다. 율법을 어기면 가차없이 벌을 가해 사지절단과 태형, 공개처형까지도 서슴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는 고사하고 빈민구호를 위해 들어온 국제 원조기구들이 떠나는 것도 다 이같은 탈레반의 극단주의 때문이다. 이들 구호요원 가운데는 복음을 전파하려다 탈레반 정권에 발각돼 억류, 사형을 당하기도 했다.

#### 5> 기도할 일

탈레반 정권의 극단적인 이슬람 근본정책으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하는 구호요원들조차 버텨내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100만 명이 넘는 아프간 난민들은 굶주림과 함께 탈레반 정권의 탄압 속에 무고하게 희생을 당하고 있다. 지난날 발생한 미국 테러 대 참사의 배후로 알려진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조직 알카에다는 사실 아프간 난민들과는 큰 상관이 없다.

그럼에도 아프간 난민들이 미국의 공급으로 마을이 폭격을 당하고 일가족이 하루아침에 숨지는 등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아프간 국민이 인도적 차원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프간 땅에 주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믿는 자들이 섬 없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그야말로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신성훈 <청년부>, 김민철 <편집부>

양춘경 집사님은 77년 이인숙 권사님과 결혼하여 슬하에 정보통신을 전공하는 큰딸 세경과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아들 세현 이렇게 1남1녀를 두고 있고 김포시에 있는 동광벨브공업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동광 벨브는 부산 동광 벨브(주) 같은 회사이지만 독립 법인체로 자동 벨브 제작, 판매, AS를 한다.

양춘경 집사님 역시 자신의 지난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사람이다. 79년 3월에 다니던 현대중공업 자회사인 (주)한국 프렌지를 퇴사하고 자신감에 넘쳐 프렌지(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하는 이음쇠) 대리점을 차려 1년 여 판매를 했는데 80년도에 1차 오일 쇼크로 인한 경제불황이 왔고 이로 인해 프렌지 대리점이 부도가 났다. 그러나 그는 그 당시 경제불황도 그렇거니와 십일조 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이 실패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말한다. 그때 그는 있는 재산을 모두 팔아 빚을 갚고 1년이 넘도록 실업자 생활을 했다. 그래도 그다지 생활이 어렵지 않았던 것은 이인숙 권사님이 약국을 경영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양집사님은 사방으로 우겨 싸임을 당하고 오직 뚫린 곳은 하늘 뿐이었다고 한다. 그는 기도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1년 후 그는 다시 프렌지 대리점을 시작하여 경영하다가 87년에 동광벨브의 전신인 동아 벨브를 창업하여 벨브 제작을 시작해서 지금은 벨브 업계에서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베테랑이 되었다.

동광벨브를 창업하고도 공장을 이전하며 여러 가지 문

교우기업탐방

# 이제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양춘경 집사(1교구)



제에 봉착하여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금 생각해보니 매번 마다 그 어려움은 더 큰 어려움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더라고 지난 날을 감사한다.

양춘경 집사님은 서울교회가 반포동에 있을 때부터 가끔씩 출석하다가 가족과 합쳐 지난 2월에 등록하고 4월부터 2부 안내와 베들레헴 찬양대를 섬기고 있으며 이인숙 권사님은 장년부를 섬기고 있는데 양 집사님은 준수한 외모로

탈렌트 강석우 집사님과 쌍벽을 이루며 2부 예배 때 본당 로비를 환하게 한다는 주위의 평이다.(다른 안내위원들 오해 없으시길)

서울교회에 오니 무엇보다 정동 보수신학에 근거한 이종운 목사님의 말씀이 좋고 가족 단위의 교체가 많아서 따뜻한 느낌을 느낀다고 한다. 그는 사업에서처럼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싶으나 아직은 새가족인 입장이라 조심스럽게 말을 들어놓고 있다고 한다. 양 집사에게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그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다. 대신 매일 새벽기도를 나가 하나님께 그 날의 일들을 조목 조목 여쭙는다.

그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께 복 받는 지론이 있는데 그의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이렇다. "그리스도인은 어렵고 힘들다고 뼈뺌하게 나갔다 하면 그대로 절단 입니네이." 뼈뺌하게 나간다고 하는 것은 감사생활과 기도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매일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면 그는 88올림픽 대로를 1시간씩 달려 김포에 있는 회사에 도착한다. 누구 보다 일찍 출근하여 푸른색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그 날의 일을 점검하고 나면 감사와 기쁨이 밀려온다.

"하나님 이제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그의 기도는 오늘도 이렇게 시작되었다.

허숙 (편집부)

## 사명자대회 동안 70인 전도대 이렇게 전도한다

70인 전도대는 사명자대회 기간 동안 전도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각 교구, 부서들과 협력한다. 지난 토요일(13일)에는 제일 먼저 당회가 70인 전도대에 가담했다.

이 날 70인 전도대원과 당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규정 목사님은 에스겔 3장 1-11절 말씀을 통해 전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므로 얼굴에 금강석(철판)을 깔고 마음을 담대히 하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이므로 가르치려고 하지말고 심플하게 복음을 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고 말씀하셨다.

예배가 끝난 후 전도대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불신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것과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실 것 그리고 성령 충만, 진절, 끈기,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후 2인 1조가 되어 각 지역으로 흩어져 약 1시간 가량 전도를 하고 돌아와 각각 전도 보고를 했다.

은마 상가를 다녀온 최종시 장로님은 상가라서 유동인구는 많으나 정작 전도하기는 더 어려웠다고 전도보고를 하며 상가 앞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 분에게 잠시 앉아도 좋겠냐고 물어보자 눈치를 채고 머리가 아프니 가라는 푸대접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명에게는 이슬비전도편지를 보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주소를 받아오셨다.

그런가 하면 박두호 장로님은 여러 분에게 전도를 했으나 아기를 업은 젊은 여인이 기억난다고 하면서 결신을 받아 내지는 못했으나 복음에 매우 관심을 보인 일이 이날 전도의 가장 큰 수확이었다고 한다.

이영기 장로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야기'라는 소책자와 순례자를 가지고 돌아다니며 전도를 하기보다는 한 티공원이나 은마 아파트 입구에 데스크를 설치하고 가벼운 음료와 사탕 등을 마련하여 좀더 차분한 분위기에서 전도를 하면 더 효과적인 것이라는 전도의 방법에 대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지만 특별한 사명감과 복음을 전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불신자의 푸대접과 무관심을 견디기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70인 전도대원이 아닌 바로 나의 몫이고 우리 교구와 부서의 몫이다. 사명자대회 동안 해당된 교구와 부서는 70인 전도대와 협력하여 의를 위해 꺾박받는 복을 받기 바란다.



## 동정

- 이종운 목사는 25일(목) 한국장로교 정체성위원회를 소집한다. 26일(금) 한국군선교 연합회 비전 2020운동실행위원회를 소집한다.
- 확장이전/2교구 이동권집사/ 환경업체 Envio
- 득손녀/5교구 박태선집사, 김초일집사
- 득녀/7교구 장인수성도, 윤도희성도
- 정철수 집사, 최명희 성도 가정 호산나 찬양대 까운 55벌 기증
- 예산 목양교회 인태균 목사 - 꽃고추 기증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손태기 집사 박우옥권사 (4교구) - 자녀 결혼 감사

☞ 목회자세미나 식사제공: 이임희집사 백영희권사, 가정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주일 설교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1 사명자 대회 7대기도제목을 위하여
2. 목회자세미나, 성경대학, 경로대학, 주부대학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안남대교 영동대교

대치역 2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5분 거리